LPGA에 부는 미국 바람 … 사상 최초 세계1, 2위 석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미국 바람이 거세다. 올 시즌 메이저 3승에 6승을 합작했으며 미국 선수가 세계랭킹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 릴리다 부다(왼쪽), 넬리 코다. 사진=AP/연합뉴스

견인차는 릴리다 부다. 1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베트남 보트 피플의 후손인 올해 25세인 부는 지난 13일 막을 내린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위민스오픈에서 우승해 시즌 3승째를 거두며 생애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이어 넬리 코다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미국은 세계랭킹이 발표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 2위에 자국 선수 이름을 올렸다.

일인자의 자리에 장기 군림했던 한국 고진영은 3위로 밀려났다. 한국은 올시즌 고진영이 2승을 거둬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미국은 올시즌 5대 메이저 타이틀중 3개를 차지하는 강세도 보였다. 부가 셰브론 챔피언십과 AIG위민스오픈을 석권했으며 어머니가 한국인인 앨리슨 코퍼즈가 US여자오픈을 차지했다. 나머지 메이저 타이틀인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은 인뤄닝(중국)이,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은 셀린 부티에(프랑스)가 차지했다.

미국은 전통의 강호인 렉시 톰슨이 부진하지만 부와 코퍼즈 등 젊은 피의 수혈로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부는 1999년 줄리 잉스터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메이저 2승을 거둔 미국선수가 됐다.

장현석 다저스행에 "다저스가 그를 훔친 것"

최근 LA 다저스에 입단하며 또 한 명의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된 장현석(19·마산용마고)이 회제다. 장현석의 계약금 90만 달러가 능력에 비해 적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 장현석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OSEN

미국 매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14일 '새로운 유망주 장현석이 박찬호, 류현진의 뒤를 잇고 싶어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장현석의 다저스 입단을 조명했다.

SI는 "박찬호, 류현진의 이름은 익숙하지만 다저스에는 지금도 최현일이라는 투수가 마이너리그에 있다. 다저스는 그만큼 젊고 유망한 한국 선수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걸 좋아한다." 라며 "장현석의 꿈이 이뤄진다면 그는 이들의 뒤를 잇는 훌륭한 투수가 될 것" 이라고 바라봤다.

SI는 "19세 선수의 97마일 패스트볼은 매우 보기 드물다." 라며 "더 충격적인 건 다저스가 그런 투수를 100만 달러 이하로 품었다는 것이다. 압도적 고교 성적을 봤을 때 그를 훔친 게 맞다." 라며 장현석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 매체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장현석의 모습이 편안해 보인다. 앞으로 그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봐야겠지만 그의 프로 커리어가 아마추어 시절처럼 흘러간다면 분명 LA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장현석의 밝은 미래를 점쳤다.

손흥민, 토트넘 주장 선임… "놀랍고 자랑스러워"

▲ 소속팀 주장 완장을 들고 포즈를 취한 손흥민. 사진=tottenhamhotspur.com

한국 축구의 간판이자 '캡틴' 손흥민(31)이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도 주장 완장을 찬다.

13일 '뉴시스'에 다르면 토트넘은 전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2023~2024시즌 손흥민을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했다." 고 공식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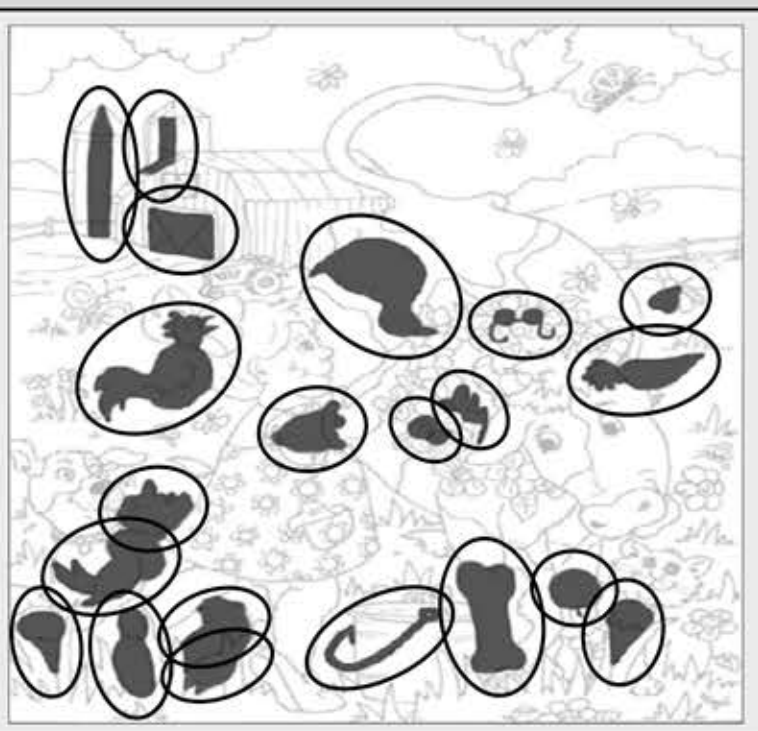
주장을 맡았던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팀을 떠날 게 유력한 상황에서 간판 해리 케인마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5~2016시즌부터 토트넘 소속으로 뛰며 EPL에서 9번째 시즌을 앞둔 손흥민이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EPL에서 한국 선수가 공식 주장으로 선임된 건 2012~2013시즌 퀸즈파크레인저스(QPR)에서 뛴 박지성에 이어 두 번째다.

손흥민은 2018 러시아월드컵 이후 한국 국가대표 주장도 맡고 있다.

손흥민은 "거대한 클럽의 주장을 맡게 돼 큰 영광이다. 놀랍고 자랑스럽다." 며 "새로운 시즌이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 셔츠와 완장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고 각오를 다졌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주장 선임은 이상적인 선택" 이라며 "모두가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걸 알고 있다. 라커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 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숫자퍼즐 정답

5	8	1	6	9	2	7	4	3
9	7	3	1	8	4	5	2	6
4	6	2	3	5	7	9	8	1
1	3	4	5	2	6	8	9	7
8	5	9	7	4	3	6	1	2
6	2	7	8	1	9	3	5	4
7	1	8	2	6	5	4	3	9
3	4	5	9	7	1	2	6	8
2	9	6	4	3	8	1	7	5